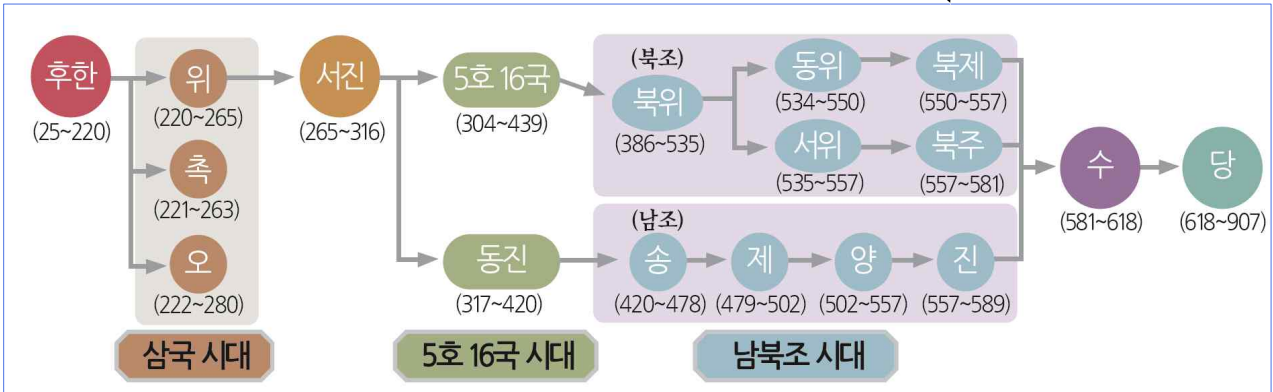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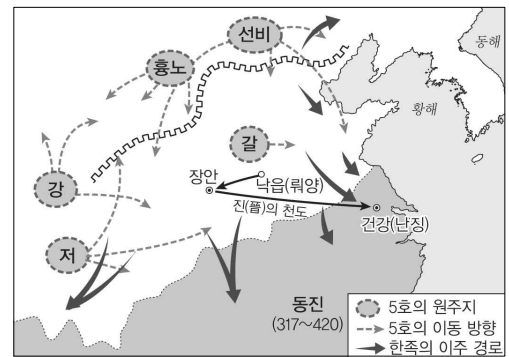
[위 · 진 · 남북조 시대(220 ~ 589) - 중국 문화권의 확대]

교정[북제(550 ~ 577)]



01. 삼국 시대[후한 멸망 후 삼국의 정립(鼎立), 220 ~ 280]

- 화북의 위(魏, 조조), 사천의 촉한(蜀漢, 유비), 강남의 오(吳, 손권)의 대립
- 위가 촉 병합(263) → 사마염(司馬炎), 진(晉) 건국(265) → 진(晉)이 오(吳) 병합(280)



<5호의 이동과 인종의 남이>

02. 5호 16국(五胡十六國) 시대(304 ~ 439)

- 서진(西晉) 왕실의 내분
 - ↳ 5호(선비 · 흥노 · 갈 · 저 · 강)의 침입과 화북 진출
- 서진의 강남 이동
 - ↳ 건강(= 난징)에서 동진(東晉) 건국(317)

▶효문제의 호인 융입 정책

북위의 효문제는 위양으로 천도하고 한족의 문물을 수용하는 한화 정책을 실시하여 선비족에게 한족의 성씨를 쓰게 하였으며,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하였다. 이를 통해 남북조 시대에는 북방 민족(호족)과 한족의 문화 융합(호한 융합)이 촉진되었다.

03. 남북조 시대(439 ~ 589)

- 1) 북조(화북 지방, 양쯔 강 이북)
 - 북위(선비족 탁발씨, 386 ~ 535)의 화북 지방 통일(439)
 - ★효문제(孝文帝, 재위 471 ~ 499)
 - : 적극적 한화정책(선비어 · 선비족 복장 금지, 한어 · 한족 문화 수용, 황실 성씨로 원 씨 사용)
 - : 균전제 실시(485), 삼장제(인장 · 리장 · 당장) 도입(486), 위양(낙양) 천도(493)
 - : 전통적인 선비족 귀족층의 반발로 효문제 사후 귀족들 간에 내분 발발
 - 서위(535 ~ 557) · 동위(534 ~ 550)로 분열 → 북주(557 ~ 581) · 북제(550 ~ 577)로 계승
- 2) 남조(강남 지방, 양쯔 강 이남)
 - 토착민과 이주민 대립, 지배층의 갈등 등 정치 불안정으로 빈번한 왕조 교체
 - ↳ 동진(317 ~ 420) → 송(420 ~ 478) → 제(479 ~ 502) → 양(502 ~ 557) → 진(557 ~ 589)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위 · 진 · 남북조 시대(220 ~ 589) - 중국 문화권의 확대]

04. 사회와 경제

1) ★문벌 귀족 사회

- 위(魏), 9품중정제 실시(220)
- : 유력 호족의 관직 독점 → 문벌 귀족으로 성장
- 대토지 소유, 중앙 고위직 독점으로 권력 확대

▶ 9품중정제(九品中正制)

각 주(州)와 군(郡)마다 중정관(中正官)이 자기 지역의 인물을 평판과 덕망, 재주 등을 살펴 9등급으로 평가하여 추천하면 국가가 이를 바탕으로 관직에 등용하는 제도였다.

2) ★균전제(均田制) 실시(485)

- 북위(北魏) → 민생 안정과 자영농 육성 목적, 수 · 당으로 계승

둔전제 (위)	• 조조가 균량 문제 해결을 위해 허창(許昌) 지구에서 실시한 제도로 국가가 농민들을 모집하여 소작료를 받고 경작시킨 제도 → 균전제 형성에 영향
점전제 (서진)	• 대토지 소유와 노비 소유를 제한하는 한편, 국가가 농민에게 정해진 토지를 지급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의무적으로 경작하게 함으로써 농민의 정착과 토지 개간을 꾀한 정책
균전제 (북위)	• 15세 이상에서 70세 미만의 성인 남녀에게 토지를 공정하게 분배하여 호족의 대토지 소유를 견제하고 민생의 안정과 조세 징수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그러나 <u>노비와 경작용 소(4마리)로 제한</u> 에도 토지를 지급하여 이를 소유한 호족 층이 그만큼 많은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당(唐) 균전제의 기초가 되었다.

3) ★강남 개발 본격화

- 강남으로 이주한 한족들에 의해 창장 강 유역 개발(개간, 농경 기술과 벼농사 발달 등)
- ↳ 강남의 경제력 향상, 남조의 인구 증가

05. 문화

1) 특징 - 남조, 북조에서 각기 다른 문화 발전 → 수 · 당의 문화적 번영 토대 형성

- 북조
 - : 유목민의 문화에 한족 문화가 더해져 발달, 국가적 차원에서 유교 존중
- 남조
 - : 귀족 중심의 문화 발달

2) 불교의 발달

- 불교의 중국화 진행 → 불경의 한자 번역, 불교 미술 발달
- 북조 황실의 후원으로 발전
 - ↳ ★원강(대동, 460), 둔황 막고굴, 룡먼(493 ~) 등 대규모 석굴 사원 조성
- 명승 배출

구미라습	344 ~ 413	• 서역 승려, 화북의 여러 국가에 머물며 불경 번역
법연	342 ~ 423	• 동진의 승려, 인도 순례, 『불국기』 저술(416)
달미	? ~ 528	• 선종의 개조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위 · 진 · 남북조 시대(220 ~ 589) - 중국 문화권의 확대]

05. 문화

3) 도교

- 북위 구경지(? ~ 448)의 이론 정립
- 태평도, 오두미도와 도가 사상의 결합
- 교단 형성, 민간에서도 성행, 종교 · 예술 생활에 영향
- 황실 수용
 - ↳ 북위(386 ~ 534)의 국교(國敎)

4) ★청담[清談, 세속의 명리(名利)를 떠난, 맑고 깨끗한 담화(談話)] 사상 유행



<죽림칠현(竹林七賢)>

- 노장 사상 유행
- 지식인들의 **현실 도피적 풍조 확산**
 - ↳ 염세적, 개인적 향락 추구
- 현학(玄學) 풍조 유행
 - : 유교 경전도 노장 사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
- 서진(西晉, 265 ~ 316)의 **죽림칠현**
 - : 산도, 왕융, 유령, 완적, 완함, 혜강, 향수

5) 문학

- 4·6 변려체의 문장 유행
 - : **도연명**(365 ~ 427)의 『귀거래사(歸去來辭)』
 - : 소명태자(501 ~ 531)의 『문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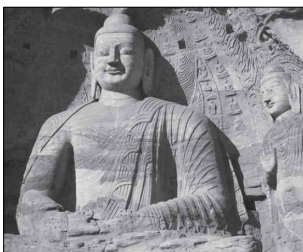


<여사집도(당 대 모시본)>

6) 서예와 미술

- 왕희지(동진, 303 ~ 361)의 왕희지체
- **고개지**(동진, 344 ~ 406), 『여사집도(女史箴圖)』
- 석굴 사원 등 불교 미술 발달

▶ 남북조 시대의 문화(『천제교과서』, p.42)



북조 문화에는 유목민의 강건한 기풍이 가미되었고, 국가적으로는 유교를 존중하였다. **불교는 국가나 문벌 귀족의 보호를 받아 융성**하였는데, **원강·릉면 석굴 사원**으로 대표되는 불교 미술도 꽃피었다.

남조에서는 **문벌 귀족 사회가 전개**되었고 **노장사상이 주목**받으면서 세속을 떠나 인물과 철학을 논하는 **청담 사상이 유행**하였다. 청담 사상을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죽림칠현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전통적인 민간 신앙과 도가 사상이 융합된 **도교가 경전을 갖추고 발전**하였다.



▶ 5세기의 동아시아 정세



▶ 9품 중정제의 변질(『수능 특강』, p.20)

- 유의가 아뢰었다. “지금 중정관을 두어 구품을 정하고 있는데, 등급의 높고 낮음이 그의 뜻에 달려 있어 임금의 권세와 은혜를 제멋대로 가지고 놀며 천자의 권한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런 까닭에 상품(上品)에는 천한 가문 출신이 없으며, 하품(下品)에는 권세가가 없다고 합니다.”
- 9품 중정제가 시작될 때는 고을에서 공정하게 논의하였으므로 …… 후에 이것이 변질되어 관위(관위)의 높고 낮음으로 품위(품위)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 높은 관위를 차지하고 있어야 고귀하다고 생각하게 되자 …… 인간의 보잘 것 없는 부분만 골라서 따지는 나쁜 풍토가 만연하여 그 폐단이 실로 적지 않았다. - 『진서』

▶ 『귀거래시(歸去來辭)』

돌아가련다. 세상 사람과 교류를 끊고 세상과 나는 서로 인연을 끊었으니 다시 벼슬길에 올라 무슨 구할 것이 있으리오.

개념 Check

- 1 북위의 황제 ()는 궤양으로 천도하고 한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 2 위·진·남북조 시대에는 향촌의 인재를 재주와 평판 등에 따라 선발하는 ()가 실시되었다.
- 3 북조 황실의 후원으로 원강, 룡문 등 대규모 불교 () 사원이 조성되었다.
- 4 북위에서 자영농 육성을 위해 실시한 ()는 수·당으로 계승되었다.
- 5 남조에서는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을 떠나 개인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는 () 사상이 유행하였다.
- 6 동진 말 도연명은 현실 도피적인 경향을 보여 주는 『_____』라는 작품을 썼다.

실전문제

01

밑줄 친 '이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19-수능]

사마염이 세운 나라가 내분으로 혼란에 빠지자, 이 틈을 타서 5호가 화북 지역에 여러 왕조를 세웠다. 5호 중 하나인 선비족이 세운 이 왕조는 화북 지역을 통일하고 새로운 토지 분배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제도는 양인의 경우 15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일정한 양의 토지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었다. 노비에게도 양인의 규정을 적용하고, 일할 수 있는 소에 대해서도 토지를 할당하도록 하였다.

<보기>

- ㉠ 한화 정책이 추진되었다.
- ㉡ 원강 석굴이 조성되었다.
- ㉢ 만한 병용제가 채택되었다.
- ㉣ 북면관과 남면관이 설치되었다.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02

밑줄 친 '이 제도'가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2020-6월 모의평가]

조조는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닦았는데, 관료가 될 만한 인물을 가문의 높고 낮음이 아니라 능력의 좋고 나쁨에 따라 9품(品)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방식이 이어져 관리 임용 제도로 확립되어, 주(州)와 군(郡)의 중정(中正)이 재능을 기준으로 인재의 등급을 정하고 천거하였다. 오래지 않아 이 제도는 시행 과정에 지방 유력자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문벌 귀족의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 ① 수시력을 사용하는 관리
- ② 『귀거래사』를 읊조리는 학자
- ③ 연극 『서상기』를 관람하는 마부
- ④ 절도사의 출정을 수행하는 군인
- ⑤ 시박사를 통해 대외 교역을 하는 상인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수(隋)의 성립과 멸망(581 ~ 618)]

01. ★문제(양견, 재위 581 ~ 604)

- 북주의 외척 양견이 수(隋)를 건국(581) → 남조의 진을 멸망시키고 재통일(589)
- 9품 중정제 폐지 → **과거제(선거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여(587) 문벌 귀족 세력 견제
- 중앙 집권 강화, 귀족의 사병 소유를 금지하여 군사력 강화
- 균전제 · 조용조 · 부병제 정비 → 국가 재정 안정, 군사력 강화
- 개황(開皇, 연호) 율령 제정
- 대흥성(大興城) 건설, **운하 광통거(廣通渠) 설치**(584)

02. ★양제(양광, 재위 604 ~ 618)

- **운하 통제거(通濟渠)를 설치**하여 화북 ~ 강남을 잇는 **대운하 건설**
- : 강남 지방의 세금 운반, 남북 간 물자 유통 활성화 및 경제 통합 강화



양제 대업(大業) 원년(605)에 황허 강 남쪽의 여러 군에서 남녀 백여 만 명을 징발하여 통제거(通濟渠)를 만들었다. …… 대업 4년(608)에 다시 황허 강 북쪽의 여러 군에서 백여 만 명의 백성을 징발하여 영제거(永濟渠)를 만들었다. …… 성인 남자만으로는 모자라서 부인들까지 노역에 동원하기 시작한 것은 이때부터이다.
- 『통전(通典)』

- : 대규모 토목 사업에 따른 인력 동원 → 농민과 지방 세력의 반발 초래
- 적극적인 대외 진출 추진
- : 돌궐 공략(北)
 - ↳ 기미 정책(동돌궐 ~ 서돌궐 이간질, 돌궐 토착 세력을 지역의 우두머리로 임명)
- : 안남(베트남 북부) 정벌
- : 4차례(598 · 612 · 613 · 614)의 **고구려 원정 실패**

03. 멸망

- 무리한 대외 정복 전쟁과 대규모 토목 공사
- : 2대 38년 만에 멸망(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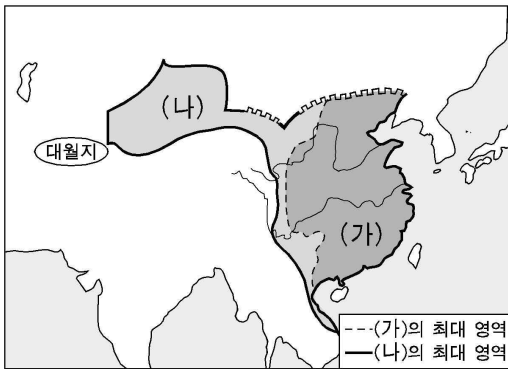
▶ 수 · 당

370여 년간 분열된 중국을 통일한 수(隋)는 2대 38년 만에 멸망하였고, 뒤이어 당(唐)이 건국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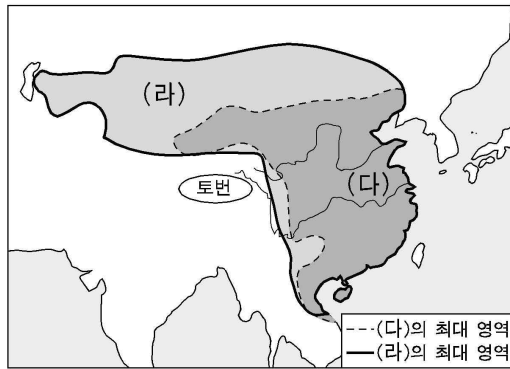
당은 귀족적, 국제적 문화를 형성하여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에 기여하였다. 발해, 신라, 일본, 남조와 토번 등은 당 문화의 영향을 받았고, 당은 중앙아시아의 넓은 지역에 대해서도 통치권을 행사하였다.



▶ 중국의 연속 왕조



(가) -
(나) -



(다) -
(라) -

개념 Check

- ① 수의 문제는 9품 중정제를 폐지하고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는 ()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 ② 수의 양제는 화북과 강남을 연결하는 ()를 건설하고 돌궐과 고구려 원정에 나섰다.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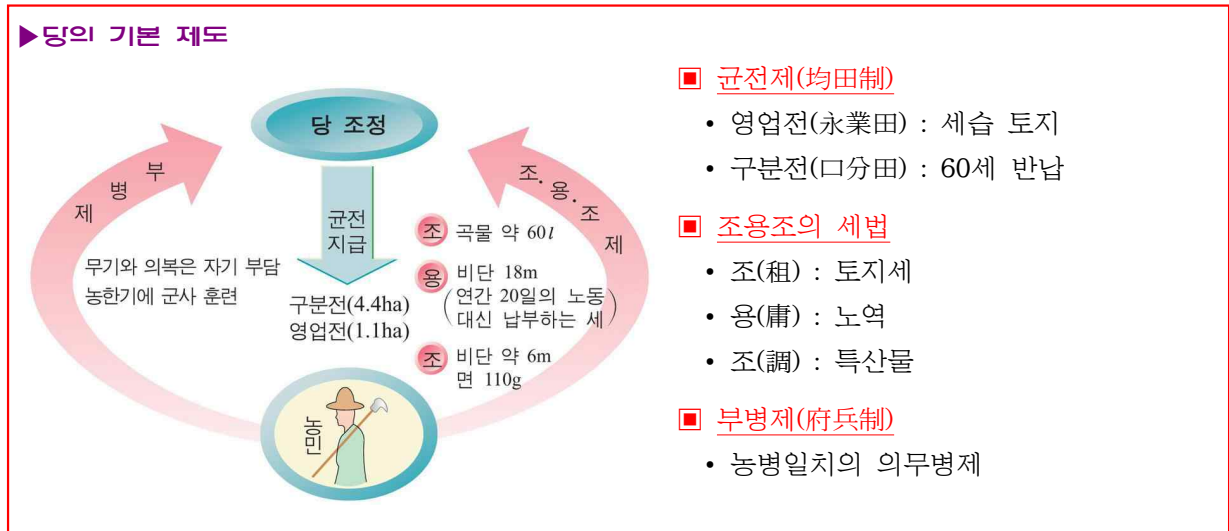
[당(618 ~ 907)의 발전과 쇠퇴]

01. 고조[①, 이연(李淵), 재위 618 ~ 626]

- 장안(長安)에 도읍(618)하고 중국 통일(621)

02. 태종[②, 이세민(李世民), 재위 626 ~ 649]

- 현무문의 변(玄武門之變, 626) → 태자, 동생을 살해하고 집권
- ★정관(貞觀)의 치세(治世)[貞觀之治]
 - 제도 개혁과 정비, 당(唐)의 기초 확립
 - ↳ 율령 체제 완성(639) → 중앙(3성 6부제), 지방(주·현), 과거제 정비
 - 군전제, 부병제, 조·용·조의 세법 정비



- 영토 팽창
 - : 동돌궐 · 토번 · 위구르 제압, 신라와 동맹 체결(648)
 - : 서역 지방 장악 → 비단길 경영권을 확보하여 동서 교류 촉진

03. 고종[③, 재위 649 ~ 683]

- 서돌궐 정복,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660)와 고구려(668) 멸망시킴 → 영토 확장
- 공영달, 『오경정의(五經正義)』 완성(653)

04. 무·위의 화(690 ~ 710)

- 측천무후(則天武后, 고종의 황후)의 집권
 - : 황제 즉위(690 ~ 705), 주(周) 건립
 - : 불교 숭상, 과거 출신자를 중용하여 귀족 세력 약화
- 위황후(韋皇后)의 집권과 권력 전횡
 - : 중종[④, 재위 683 ~ 684 · 705 ~ 710]의 황후, 중종 독살(710)



<측천무후>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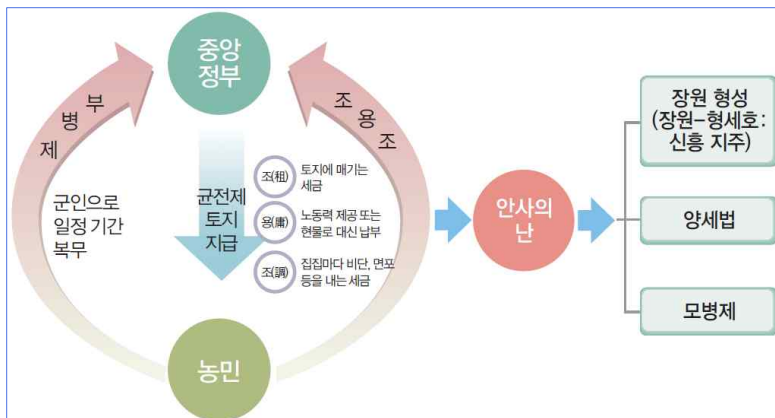
[당(618 ~ 907)의 발전과 쇠퇴]

05. 현종[⑦, 이융기(李隆基), 재위 712 ~ 756]

- **개원(開元)의 치세(治世)**, 713 ~ 741
: 무후·위후 시기에 누적된 폐단 척결
- 천보(天寶, 742 ~ 756)의 쇠(衰)
: 환관 고력사(高力士) 신임
: 비(妃) 양옥환(양귀비) 총애
: 사회·경제 혼란 발생
- **탈라스 전투(751)** 패배

06. ★**안·사(安史)의 난(755 ~ 763)**

- 배경
: **절도사(번진의 군사·재정·행정 3권 장악, 710)** 세력의 성장
: 양국충(楊國忠)의 권력 전횡
- 전개
: 천보 14년 절도사 **안녹산(703 ~ 757)**이 범양(范陽)에서 반란 → 뤼양(洛陽) 점령 → 고선지 장군의 장안(長安) 진출 저지 → 안녹산의 장안성 함락(756) → 안경서의 사주로 안녹산 피살(756) → **사사명(? ~ 761)**의 지휘권 계승 → 사조의의 사사명 살해 → 당군(唐軍)의 사조의의 군대 격파(763)
- 결과
: 당의 사회·경제적 변화



07. 쇠망

- 번진(藩鎮) 절도사들의 독자적 지배권 강화 → 중앙 정부의 통제력 약화, 환관과 관료의 권력 다툼
- 장원(莊園) 증가 → 농민 몰락 → **황소의 난(875 ~ 884)** 등 농민 봉기 발발로 쇠퇴 가속
- 위구르, 토번 등의 침입으로 정복지의 대부분 상실
- **절도사(節度使) 주전충**에게 멸망(907)
↳ 5대 10국 시대 전개(907 ~ 960)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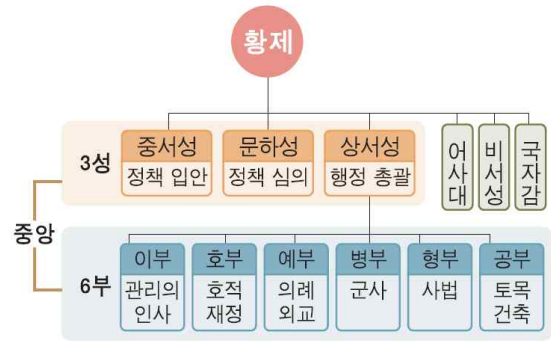
[당(618 ~ 907)의 통치 제도]

01. 율령 체제 확립

- 율(형법) · 령(행정법) · 격(율령의 보충 규정) · 식(시행 세칙) → 동아시아 각국에 영향

02. 통치 체제

- 3성 6부
- 경조(京兆) 장안(長安) → 부 → 10도 → 주 → 현



03. 관리 선발 제도

- 과거와 음서
- : 문벌 귀족의 관직 독점 · 특권 차지
- : 과거제를 통한 관리 선발에서도 문벌 중시

04. 대외 정책

- 정복 지역에 도호부(都護府) 설치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기미 정책(羈縻政策) 실시

05. 균전제(均田制)

- 정남에게 영업전(營業田, 세습 허용), 구분전(口分田, 60세 반납) 지급
- 토지와 농민을 일체로 파악 → 농민을 토지에 묶어 조세(조 · 용 · 조) 징수, 병역 부과
- 자연농 육성, 중앙 집권을 위한 경제 기반 마련

[당(618 ~ 907)의 사회와 경제]

01. 사회

- 문벌 귀족 중심의 사회

02.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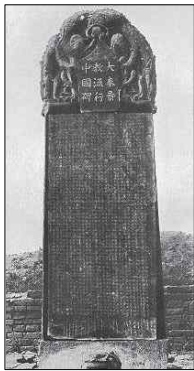
- 농업 생산력 증대
- : 화베이(華北) 지방에서 2년 3작 가능
- 차(茶) 재배 성행
- 상업 발달
- : 개원통보(621 ~) 유통, 비전(飛錢, 약속 어음, 일종의 지폐) 사용
- : 행(行, 상인 조합) 출현
- : 장안, 뤼양, 양저우, 광저우 등 대도시 성장
- 시박사(市舶司) 설치(광저우, 714)
- : 무역 활동 감시와 세금 징수 담당

동아시아 세계의 형성

[당(618 ~ 907)의 문화]

01. ★개방적·국제적 성격

- 동아시아 문화권(유교·한자·불교·율령) 형성
- 수도 장안(長安), 바둑판 모양으로 설계
 - ↳ 발해의 상경성, 일본의 헤이조쿄 건설(710)에 영향
-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네스토리우스파 크리스토포교(경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외래 종교 전래



태종께서 새 왕조를 빛나게 하시고 현명한 성인으로서 백성을 다스리실 때, 대진국에 아라본(阿羅本)이라는 높은 덕을 가진 분이 있었다. …… 험한 길을 달려 정관 9년(635)에 당의 수도 장안에 이르렀다. …… 정관 12년 7월에 “…… 대진국의 큰 승려 아라본이 멀리 이곳까지 와서 경전과 성상을 바쳤는데, 그 교리가 현묘·무위하고 그 종지는 생성(生成)요체를 잘 밝히며, …… 마땅히 천하에 행하여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는 조서를 내리셨다. 그래서 담당 관청이 곧 장안의 서북쪽 구역에 대진사(大秦寺)를 세우고, 21명의 승려를 인가해 주었다. - 대진 경교 중국 유행비(7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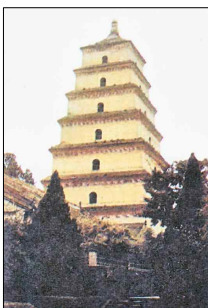


<청진사>

02. ★귀족적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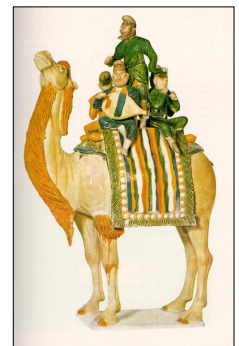
- 시문학 발달
 - : 귀족 취향의 시(詩) 유행 → 시성 두보(『춘망』), 시선 이백 등이 활약
 - : 문장 → 한유(768 ~ 824), 유종원(773 ~ 819)
- 유학의 발달
 - : 과거 시험의 기준
 - : 공영달(574 ~ 648), 『오경정의(五經正義)』 편찬(653)
 - ↳ 훈고학의 집대성, 과거 수험서로 활용

03. 종교의 발달



<대인탑(645)>

- 도교
 - : 황실의 보호, 각지에 도관(道觀, 도교 사원) 건립
- 불교
 - : 현장(600 ~ 664)의 『대당서역기』(비단길, 인도 기행문)
 - ↳ 현장이 가져온 불경 보관을 위한 대안탑(大雁塔) 건설
 - : 의정(635 ~ 713)의 『남해기귀내법전』(인도 여행기)
 - : 중국화 촉진
 - ↳ 혜능(638 ~ 713), 남종선(南宗禪) 창시



<당삼차>

04. 공예

- 당삼채(이국적 특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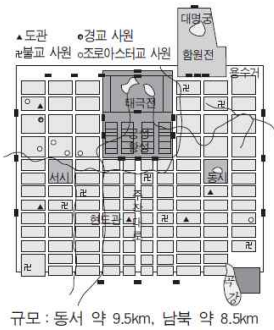


▶ 조·용·조외 양세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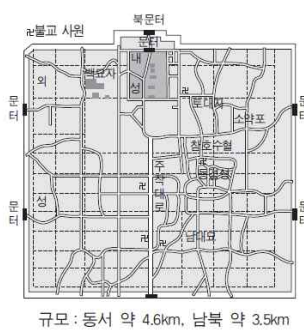
① 부역의 법은 모든 정(丁)에 대해 해마다 2석을 조(租)로 바치게 한다. 조(調)는 향토 특산물에 따라 비단 명주의 경우 모두 2장(丈)을, 면포의 경우 2장 5척을 바치게 한다. …… 정(丁)에 대해서는 해마다 20일의 역(役)을 부과한다. 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대신에 하루 3척의 비율로 용(庸), 현물을 징수한다. - 『구당서』

② 전국의 백성을 현재 거주한 지역에 호적 등기하고, 정남 혹은 중남에 관계없이 **토지와 재산의 다과에 따라 납세의 등급을 정한다**. 세액은 호세와 지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여 **여름과 가을 양 시기로 나누어 징수한다**. - 『신당서』 양염전

▶ 7 ~ 8세기 동이사이 각 나라의 수도



<진진>



<상경>



<에이조묘>

▶ 당의 기미 정책(『천지교고서』, p.43)



당 태종 때부터 본격화된 영토 확장은 8세기 중엽 절정을 이루었다. 당은 새로 정복한 땅에 도호부(都護府)를 두어 관리와 군대를 머물게 했는데, 동돌궐을 무너뜨린 뒤에는 안북 도호부, 서돌궐을 무너뜨린 뒤에는 안서 도호부를 두었다. 이처럼 정복지에 도호부를 설치하고 토착 세력에 자치권을 주어 간접적으로 통치하는 방식을 가축을 다룰 때 사용하는 말고삐와 쇠코뚜레[기미(鞮縻)]에 비유하여 기미 정책이라고 한다.

개념 Check

- ① 당은 태종 때 율령 체제를 확립하고 ()을 정복하는 등 발전하였으나 현종 때 일어난 () 이후 절도사의 독자적 지배권이 강화되면서 쇠퇴하였다.
- ② 당 대에 상업이 발달하여 일종의 약속 어음인 ()이 사용되고 상인 조합인 행이 출현하였다.
- ③ 안사의 난을 전후하여 균전제가 붕괴되면서 군사 제도는 ()로 바뀌게 되었다.
- ④ 당 대의 공예 분야에서는 화려하고 이국적인 특색을 지닌 ()가 유행하였다.
- ⑤ 당 대 승려인 ()은 인도를 순례하고 『대당서역기』를 저술하였다.
- ⑥ 당의 수도 ()에는 조로아스터교, 경교, 마니교 등 서역 종교의 사원이 건립되었다.

실전문제

01

밑줄 친 ‘건설’이 이루어진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20-9월 모의평가]

상서우승 황보의에게 명하길, 황허 강 남쪽과 화이허 강 북쪽에 사는 여러 군의 백성 일백여만 명을 징발하여 통제거를 건설하게 하였다. …… 화이허 강 남쪽에 사는 백성 십여만 명을 징발하여 산양에서 양자에 이르러 창장 강에 들어가는 한구를 건설하게 하였다. 그 옆에는 황제가 행차하는 길을 만들고 장안에서부터 강도에 이르기까지 황제가 머물 별장을 40여 곳에다 설치하였다.

- 『자치통감』

- ① 군기처를 설치하였다.
- ② 과거제를 시행하였다.
- ③ 만한 병용제를 채택하였다.
- ④ 북면관제와 남면관제를 운영하였다.
- ⑤ 절도사 세력을 약화시키고 중앙 금군을 강화하였다.

03

밑줄 친 ‘나라’에서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2017-9월 모의평가]

나라는 파괴되었어도 산하는 그대로요
장안성에 봄이 오니 초목이 무성하네
시대를 슬퍼하여 꽃도 눈을 흘리고
한 맺힌 이별에 나는 새도 놀라는구나
봉황불은 석 달이나 계속 오르고
집에서 온 편지 너무나 소중하여라
흰머리 굵으니 자꾸 짧아져
이제는 비녀도 꽂지 못하겠네

- 두보, 「춘망」 -



- ① 옥수수를 먹는 행인
- ② 홍루몽을 읽고 있는 관리
- ③ 조로아스터교 사원에 가는 신도
- ④ 선교 활동을 펼치는 예수회 신부
- ⑤ 회관에서 물품을 정리하는 산시 상인

02

밑줄 친 ‘반란’이 일어난 왕조에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수능]

천보 4년, 양옥환은 귀비로 책봉되었다. 황제의 총애를 받은 덕분에 그녀의 친족들은 벼락출세를 하였다. 그중 재상이 된 양국충은 안녹(록)산을 시기하여 그를 제거하려다가 안녹산의 반란을 초래하였고, 황제를 모시고 피란 가던 도중에 양귀비와 함께 죽음을 맞았다.

- ① 탈라스 전투에 참전한 군인
- ② 『청명상하도』를 감상하는 황제
- ③ 균전제의 실태를 조사하는 관리
- ④ 조로아스터교 사원에 가는 신도
- ⑤ 불경을 구하려 인도로 떠나는 승려